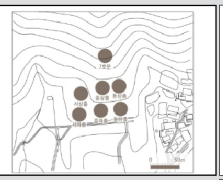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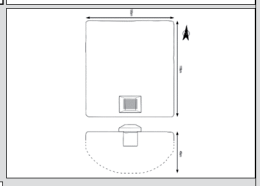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07





출토문자로 본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와 주인공

The historic chronology and character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as seen by the excavated a records

이 주 헌
부산고고학회 회장

Ⅰ. 머리말

Ⅱ. 출토문자와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

Ⅲ.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과연 聖王인가?

Ⅳ. 益山 雙陵 武王說의 의문점과 피장자 검토

Ⅴ. 맺음말

이 논문은 (재)중앙문화유산연구원의 2024년도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국문요약

본 연구는 백제 사비기 유적에서 출토된 문자자료를 능산리석실의 다양한 형태와 서로 비교하여, '부여 왕릉원'을 중심으로 한 王陵 가운데 中下塚(2호분)과 益山 雙陵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주인공에 대하여 새로운 視角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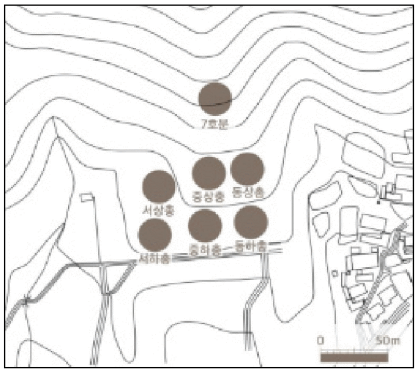
'부여 왕릉원'은 백제가 사비로 遷都한 이후 왕실에서 조성한 陵園으로서, 聖王~武王代에 이르는 사비기의 王과 王族이 永眠해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일부 陵墓의 피장자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일단락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지만, 백제 사비기 지배층의 사회적인 인식과 불교의 수용능력을 반영하는 석제사리감의 세부적인 형태나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를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에 적용하여 曆年代를 추정해 보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主人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백제인이 남긴 출토문자 가운데 능산리사지 석제사리감 및 왕흥사지 청동제사리합, 그리고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기록물들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무렵 백제왕실의 사리신앙과 왕실사찰에 대한 창건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 · 사회 · 종교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백제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여 왕릉원'에 있는 中下塚(2호분)은 일제강점기 고고학 조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출토문자를 통해서 볼 때, 피장자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하는 聖王이 아니라 女性의 능묘이며, 그 주인공은 聖王의 婦人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武王의 陵墓로 정설화 되어 있는 益山 雙陵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접목시켜 정합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존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主人公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즉, 雙陵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근거로 主人公을 武王으로 파악하거나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에 대한 기존의 인식 등은 출토문자와 문헌기록 등과 서로 정합하지 않는 의문과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益山 雙陵 武王說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으며 재검토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백제의 聖王~武王代에 이르는 사비기 王陵에 대한 비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제어 : 출토문자, 석제사리감, 역연대, 능산리형석실, 부여 왕릉원, 익산 쌍릉

Ⅰ. 머리말

부여 능산리 일대에는 백제 사비기의 고분과 사찰 및 나성 등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이 유적들은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몇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로 유적의 대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烏石山(해발 181m)으로 이어진 능선의 중앙부 남사면 자락에 자리한 능산리고분군은 1915년과 1917년에 일부가 조사된 이후, 1930년대에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부여 왕릉원'으로 개명된 능산리고분군은 다른 백제 고분에 비하여 밀집도가 낮고 배치 양상도 비교적 일정한 편인데,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한 횡혈식 석실묘가 대부분이며, 각각의 석실은 모두 정연하게 치석된 판석과 장대석을 이용하여 축조되어 있다. 각 석실의 횡단면 형태는 터널형(1기), 육각형(5기), 방형(2기)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단면 육각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체로 고분의 현실은 장방형이고, 현문은 문틀식구조이며, 현실 앞으로는 비교적 긴 연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일부 고분에서는 호석시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를 '능산리형석실'이라고 부르며, 고분의 입지와 규모, 축조 방법, 출토유물, 장식기법 등을 고려할 때 백제 사비기(538~660년) 왕과 그의 가족들 陵墓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1] 또한, 능산리 동고분군과 서고분군도 고분의 구조와 규모, 축조방법 등에서 중앙에 분포한 고분들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아 혈연적으로 王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백제 최고위층의 고분군으로 이해하고 있다(山本孝文 2002: 104).[2]



[그림 1] 능산리고분군 배치도(2022년)

한편, 이 가운데 中下塚(2호분)으로 널리 알려진 고분은 '부여 왕릉원'의 중앙고분군 내에서 중심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그림 1)

1) 학계에서는 대체로 익산에 있는 雙陵을 武王과 王妃의 陵墓로 인식하고 있으며, 義慈王의 陵墓는 중국 낙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능산리고분군에는 聖王-威德王-惠王-法王에 이르는 4명의 君主와 그들의 직계가족이 안장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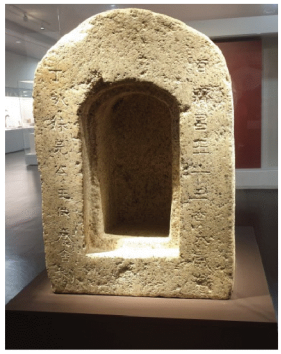
2) 능산리 '중앙고분군'과 '동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석실의 규모는 물론이고 매납된 목관의 위계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에 주목하여 중앙의 6기만을 王陵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김규운 · 양숙자 2016: 113~115).

武寧王陵이나 송산리 6호분 등과 같은 백제 웅진기 전축분의 아치형 구조와 동일한 터널식 천장형태를 따르고, 장대석과 판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뒤 회를 발라 마감했다는 점 등에서 능산리형석실 중 가장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강인구 1977: 89; 강원표 2016: 116). 나아가, 中下塚(2호분)의 주인공에 대하여서는 별다른 논란 없이 泗沘로 遷都를 단행한 聖王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강인구 1976: 85~86; 이남석 2000: 23~24) 하지만, 이러한 통설은 中下塚(2호분)에 대한 기존의 조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泗沘遷都라는 역사적 사건에 인식이 한정되어 陵墓의 主人公을 추정한 것이어서 그다지 논리적이지 못하며, 의문스러운 부분도 적지 않다. 특히,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한 聖王에 대하여, 사비로 遷都한 王의 陵墓는 당연히 '부여 왕릉원'에 조영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641년에 사망한 武王의 陵墓는『高麗史』地理誌에 언급된 俗說과 설화적 성격이 강한『觀世音應驗記』나『三國遺事』등의 武王 관련 기록을 근거로 雙陵 대왕릉으로 역사화하는 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다. 이는 해당 고분의 피장자가 聖王과 武王이라는 확실한 고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덤의 主人公은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고대사를 다루는 연구자는 문헌사료와 고고자료에 대한 부정합한 해석이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등의 연구 방법은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존에 진행된 역사적 해석에 어떠한 문제는 없는지, 새로 발견된 자료와 서로 비교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용하고 기존 해석의 오류를 찾고자하는 시도는 역사가의 본분이라 생각한다.

이에, 백제 사비기의 유적에서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출토문자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의 다양한 형태와 서로 비교하여, '부여 왕릉원'을 중심으로 한 사비기 王陵의 主人公에 대하여 추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中下塚(2호분)과 益山 雙陵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경향과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曆年代와 파장자에 대하여 새로운 視角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뚜렷한 고고학적 증거나 역사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이해하였던 통설에 대한 재검토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백제사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넓히고 한국고고학의 심도 깊은 연구에 작은 받침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출토문자와 능산리형석실의 역연대

백제에서 伽藍을 창건하고 舍利를 봉안하였음을 기록한 것으로는 ①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 ②왕흥사지 목탑지 출토 사리장엄구 ③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로서 현재까지 3개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이 자료들은 사비기에 이루어진 역사적 팩트에 대한 기록이므로 당시대에 유행했던 다양한 형태의 능산리형석실과 비교하여 曆年代를 추출해 낼 수 있는 key word로서 매우 중요한 고고자료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비기에 舍利를 봉안했던 사실을 전하는 이 출토문자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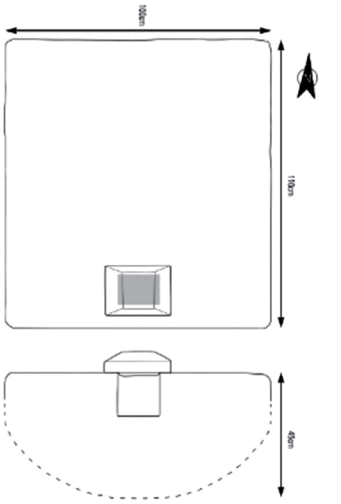


[그림 2] 능산리사지 석제사리함

①창왕명 석제사리감은 1995년에 부여 능산리고분군과 부여나성 사이에 위치한 능산리사지 목탑지에서 출토되었다(그림 2). 이중기단으로 구성된 목탑지에는 동서 108㎝, 남북 133㎝ 크기의 심초석이 깊이 114㎝ 내외로 묻혀 있었다. 石製舍利龕은 심초석의 남쪽 가장자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정도 기울어진 채 발견되었다. 사리감의 북측에서는 상부가 결실된 心柱가 발견되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밝혀졌다(국립부여박물관 2000: 25).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목탑지는 기반토를 조성한 뒤 심초석이 들어갈 중앙의 자리를 굴광한 후 심초석을 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후 심초석의 남쪽 가장자리에 석제사리감을 놓고 옆에 지름 50㎝ 내외의 心柱를 설치했던 것으로 추측된다(한정호 2013: 45~50). 심초석 상부에서 발견된 사리감은 사리장엄구를 넣기 위해 제작된 일종의 사리공이다. 석제사리감의 전체적인 형태는 밑이 평평하고 상부가 둥근 아치형이며, 높이 74㎝에 가로와 세로는 각각 50㎝이다. 舍利를 봉안하기 위해 굴착된 감실은 25.3㎝×25.5㎝×21.5㎝ 규모로 형태도 아치형이며 둘레에는 뚜껑을 받치기 위한 4㎝ 정도의 턱을 마련하였다. 감실에는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 라는 명문이 좌우측에 각각 10자씩 새겨져 있어, 백제 昌王 十三年(567년)이라는 조성연대와 백제 王室의 발원에 의해 王陵으로 추정되는 능산리고분군에 묻힌 사람의 축원을 위해 사찰이 창건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3] 또한, 심초석 주변에서는 소조불과 금동 및 각종 장식품 등 595점에 달

3) 선학의 연구에 의하면, 석조사리감에 기록된 昌王은 威德王이고 妹兄公主는 威德王과 혈연관계인 누이이다.

하는 사리공양품이 수습되어 삼국시대 佛舍利莊嚴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3] 왕흥사지 석제사리감 모식도

②왕흥사지 출토 舍利莊嚴具는 목탑 아래에 놓인 心礎石의 남쪽에 마련된 사리감 내에서 출토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51). 자연석을 100㎝×110㎝×45㎝ 크기의 상방하원형 모양으로 가공한 것으로서, 윗면은 비교적 평평하게 다듬었으나 아랫면은 둥그스름한 형태를 하고 있다. 心礎石의 남쪽 중앙 윗면에 만들어진 舍利孔은 16㎝×12㎝×16㎝ 크기로 장방형이며, 발굴당시 사리공 위에는 모죽임 형태의 단면 사다리꼴의 화강암 석조뚜껑이 덮여 있었다(그림 3). 화강암을 釘으로 곱게 잔다듬질하여 만든 이 석조뚜껑의 바닥면에는 사리공 크기에 딱 맞는 얕은 턱이 있어서 사리감 위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뚜껑의 윗면에는 붉은색의 辰砂로 둥글고 장식적인 동심원과 삼엽문, 꽃문양 등이 그려져 있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90). 舍利器를 봉안하기 위해 굴착한 방형의 감실 안에서는 원통형 청동제합과 은제호, 금제병으로 구성된 금속제 3중 사리기가 발견되었는데, 3중 사리기 가운데 가장 바깥쪽의 외합인 청동제합의 표면에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음각기법으로 "丁酉年二月十伍日 百濟昌王爲亡王子 立刹本舍利二枚 葬時神化爲三"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어, 학계에서는 威德王 二十四年(577년)에 죽은 王子를 위해 사찰을 세우고, 舍利를 묻은 후 木塔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2009년 서탑의 해체작업 중 발견된 것으로 백제 舍利信仰의 발전과정과 舍利莊嚴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김현용 · 오정현 2014: 29). 서탑 1층 탑신 중앙에 설치된 心柱石(100.5㎝×100.5㎝×75㎝) 상면에 24.8㎝×24.8㎝×27㎝의 舍利孔이 방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첫 번째 心柱石과 두 번째 心柱石의 맞댄 면 사이에는 밀봉하기 위한 석회가 가

능산리사지는 泗沘遷都(538년)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이곳에 石製舍利龕을 봉안한 시점(567년) 사이에 逝去한 王은 聖王이 유일하다. 따라서 능산리고분군에서 가장 이른 형식을 하고 있는 中下塚(2호분)의 주인을 聖王으로 파악하고, 능산리사지를 비명횡사한 聖王의 명복을 빌고자 창건한 '陵寺'로 이해하고 있다(신광섭 2006: 35~36). 하지만, 中下塚(2호분) 피장자가 실제로 聖王인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론이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장자리를 따라 발라져 있었다(그림 4). 心柱石은 총 17단으로 4층 탑신 높이까지 수직으로 쌓여 있었으며 제일 위쪽에 있는 心柱石 상면에는 찰주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직경 36㎝, 깊이 9.5㎝의 원형 홈이 확인되었다(이동식 · 이연경 2014: 280).

[그림 4] 미륵사지 서탑 심주석

舍利孔 내에는 원형합 6개를 두고 이들 사이에는 목색 유리구슬을 채운 뒤 남측에는 은제관식과 금제 소형판을, 북측에는 직물을 싼 刀子를 여러 자루 두었다. 그리고 남측 벽면에 비스듬히 金製舍利奉迎記를 올려놓고 정중앙에 금동제사리호를 마지막으로 안치하였다. 특히, 금제사리봉영기는 가로 15.3㎝, 세로 10.3㎝의 금판으로 앞뒷면에 刀子를 이용하여 음각하고 각 획을 따라 朱墨을 칠하였는데, "窺以法王出世 隨機赴感 應物現身…(중략)…故能謹捨淨財 造立伽藍 以己亥年正月二十九日 奉迎舍利…(중략)…並蒙福利凡是有心 俱成佛道"라고 하는 193자(앞면 99자, 뒷면 94자)의 명문이 기록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武王 四十年(639년)에 王妃인 沙宅積德의 딸이 발원하여 미륵사에 서석탑이 세워진 것으로 금제사리봉영기의 내용은 크게 부처의 공덕과 사리의 영험함에 대한 찬미, 백제왕후의 재물 희사를 통한 가람의 조영과 사리봉안, 대왕폐하와 왕비에 대한 발언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장미애 2020: 85).

이상에서 살펴본 출토문자 자료는 사리장엄구를 봉안하는 석제사리감의 외형적인 특징에 따라서 3가지 유형이 확인되는데, 즉,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과 같이 윗부분이 아치형을 띠는 것(A유형)과 왕흥사지 석제사리감의 뚜껑과 같이 윗부분을 모죽임하여 단면이 육각형을 띠는 것(B유형),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서석탑의 심주석과 같이 단면이 사각형을 하고 있는 것(C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창왕명 석제사리감에 보이는 아치형 감실(A유형)에 대해서는 중국 漢나라의 부장품에 보이는 馬蹄形漆器의 기형과 비교하여 중국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주경미 2002: 41), 馬蹄形漆器는 시기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리용기로 사용된 예가 없어 기형만을 놓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아치형을 하고 있는 사리감의 형태는 무령왕릉에서 보이듯이 중국 전축분의 영향으로 웅진대 말부터 등장하는 볼트(vault)구조의 고분과 유사한 형태로 이를 계승한 중하

총의 현실구조에서 따온 것이라거나(이도학 1995), 사리감의 측면에 사리를 안치하는 감실을 마련하여 사리를 봉안하고 뚜껑이 아닌 문으로 마감하였으며, 竪納이 아닌 橫納의 개념으로 중국에서 棺 개념을 사리기에 도입한 것과 같이 백제에서도 횡혈식 석실의 형태를 舍利龕에 전용한 것이라는 견해는 주목되는 부분이다(김연수 2000: 106, 2003: 269~272).

백제는 538년에 도읍을 웅진(공주)에서 사비(부여)로 이전하고 사비시대에 들어갔다. 이시기 王들의 陵墓로 조성된 '부여 왕릉원'에는 장방형 플랜의 현실과 아치형의 천장, 수직을 이룬 전후의 벽면 등 분명하게 현실 천장의 횡단면이 아치형인 공주 송산리고분군 전실묘의 구조와 세부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형태를 갖춘 석실묘가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中下塚(2호분)이다. 더구나, 바닥에는 塼모양의 판석을 깔고, 현실의 폭과 같은 크기로 관대를 만든 것, 연도입구에 石塼을 쌓아 폐쇄한 것 등도 무령왕릉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有光教一 1979: 479~498). 이 가운데 아치형 구조는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감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 舍利奉安과 舍利龕의 제작에 당시 유행했던 능산리형석실의 구조 개념이 접목된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왕흥사지 木塔의 아래에서 확인된 상방하원형 모양의 대형석재는 목탑의 刹柱를 받치는 心礎石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방형 석재의 남쪽에 마련된 舍利龕(舍利孔)을 덮은 뚜껑은 舍利器를 안전하게 봉안하기 위한 龕室로 기능했던 구조물이다. 중국 남북조시대의 목탑지에서는 이와 같이 탑 아래에 별도의 사리안치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현존하는 목탑지의 사례가 많지 않으며 탑마다 다른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백제시대의 木塔에도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형이나 건축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조적 변형이 시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왕흥사지 石製舍利龕은 목탑 중심의 지하부에 놓인 心礎石이자 舍利器를 봉안하기 위한 石函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서, 백제식 목탑에 맞게 변형된 독특한 구조물로 해석할 수 있다(주경미 2018: 61). 특히, 모죽임 형태의 석조뚜껑(B유형)은 능산리고분군에서 西下塚(3호분)을 비롯하여 4호분~7호분, 雙陵(대왕묘, 소왕묘)등 현실의 횡단면이 육각형을 한 평사천장식(고임식) 구조와 동일한 것임을 엿볼 수 있는데, 이는 능산리형석실의 유행시기와 歷年代를 추정하는데 있어 주목된다.

또한, 미륵사지 석탑은 외형적으로는 목탑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여 축조한 것이나, 1층 탑신사방에 문을 내어 탑 내부에 십자형으로 통로를 만들고 중앙에 心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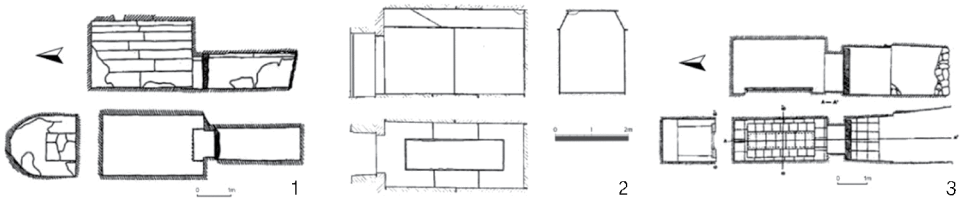
를 세워 사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탑의 재질이 목재인 경우에는 舍利孔이 기단이하의 지하에 위치하고, 석재인 경우에는 1층 이상의 상부에 안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륵사지 석탑에서 확인된 사리공의 위치는 목탑과 석탑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므로, 많은 학자들이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번안한 시원양식이라 한다(고유섭 1975; 장경호 1988; 천득염 1990). 따라서 사리의 매납위치 또한 기단부 이하에서 상층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고, 心柱石에 舍利孔을 설치한 것은 이전의 목탑에서 보이던 심초의 사리감이나 사리공의 매납방식에서 그 위치는 달라졌지만 지하식 심초구조가 지상식 심초구조로 바뀌면서 여전히 木塔의 刹柱 기능을 답습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미륵사지 석탑의 사리봉안 방식은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석탑인 산동성 사문탑의 사리봉안 방식과 비교되기도 하지만(이귀영 · 박대남 2010: 110; 주경미 2002: 40~41, 2014: 329),[4] 서탑 사리장치에서 십자형 통로 공간의 천장은 수직으로 올라간 벽석 위에 두께 25㎝ 내외의 2단 받침석을 걸치고 대형판석을 덮어서 마련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 능산리형석실의 구조가 사리장치시설에 적용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조은경 2011: 190~192)도 있다.[5]

한편,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이후 사찰의 건립과 함께 사리 봉안을 위한 불탑이 많이 건립되었다. 특히,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불교를 정치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던 백제 사비기에 있어서 지배층의 묘제는 부처의 舍利를 모시는 封墳으로서의 塔본연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리봉안에 묘제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 백제 불교건축의 발달된 측면을 석실의 구조와 관련지어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견해(조은경 2011: 190~191)는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미륵사지 서탑에서 함께 매납된 다양한 공양구는 그 구성이 웅진기 武寧王陵의 부장품과 유사하다. 고분은 특정인의 죽음과 관련이 있지만, 왕흥사지 목탑

4) 미륵사지 사리기의 형식이나 양식적 특징은 隋代 불사리 장엄과는 전혀 달라서 백제적 변용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동시대 중국에서는 盝頂形方形函 형식이 사리기의 외함으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백제에서는 왕흥사지의 사리공 뚜껑을 제외하고는 盝頂形方形函 형식이 드문 점을 백제문화의 특징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있다(주경미 2014: 329).

5) 미륵사지 서탑의 천장 구조를 백제 후기 횡혈식석실분 가운데 고임식(평사천장식)의 구조를 한 능산리 中上塚이(5호분)나 논산 육곡리 2호, 7호분과 같은 형식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 하지만, 고임식에서는 천장석이 석실방향과 직교하며 折角으로 경사진 북벽과 남벽의 모서리 부분에 경사부재를 걸쳐 천장석을 받치도록 가구한 구조가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경사부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채 대형의 천장석이 설치된 미륵사지 서탑과는 구조와 공법상에서 차이가 있다.

사리장엄구의 銘文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목탑 건축시 心礎石에 매납한 여러 가지 공양품도 특정인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으며, 미륵사지 서탑의 사례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양품은 고분부장품의 구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舍利는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sarira'를 '設利羅', '實利羅', '實唎' 등으로 음역한 것으로, 뜻은 '몸이나 뼈, 시신(體, 骨組, 骨, 身, 身骨, 遺身, 屍身, 遺骨) 등이며(주경미 2003: 14), 단어 자체에 죽음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김낙중 2014b: 299)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나아가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사비기의 舍利莊嚴具는 모두 백제 왕실의 발원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당대 최고 수준의 작품이며, 특히 발원자와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銘文을 지니고 있어 동아시아 불교미술은 물론이거니와 사료가 부족했던 백제고고학의 새로운 曆年代 자료로서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여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창왕명 석제사리감이나 왕흥사지 석제사리감, 그리고 미륵사지 서탑 석제사리감을 해당시기에 유행한 능산리형 석실의 구조변화와 직접 관련지어 살펴보는 작업은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그림 5] 1. 능산리 中下塚(2호분), 2. 익산 雙陵 대왕묘, 3. 능산리 東下塚(1호분)

이미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논의된 바와 같이 백제 사비기 능산리형석실의 천장구조가 아치형천장(터널형)에서 평사식(육각형)이나 수평식(방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백제 석탑에서 사리장엄구를 안전하게 봉안하는 舍利龕의 구조와 동일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능산리사지와 왕흥사지 그리고 미륵사지 서탑 석제사리감(심주석)의 형태가 A유형 → B유형 → C유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은 능산리형석실의 천장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터널형 → 육각형 → 방형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재확인해주는 고고자료이기도 하다. 즉, '부여 왕릉원'에서 中下塚(2호분)과 같은 횡단면 터널형 천장구조(그림 5-1)는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함(A유형, 丁亥年/567년)의 형태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6세기 3/4분기에 이르기까지 A유형의 천장구조를 이룬 능산리형석실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西下塚(3호분), 西上塚(4호

분), 中上塚(5호분), 東上塚(6호분), 7호분, 익산 雙陵(대왕릉, 소왕릉)과 같은 횡단면 육각형 구조(그림 5-2)는 왕흥사지 목탑지의 석제사리감(B유형, 丁酉年/577년)의 형태로 볼 때, 6세기 4/4분기 이후에 능산리형석실의 한 유형으로 '부여 왕릉원' 일대에서 조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東下塚(1호분)(그림 5-3), 서고분군의 1호분, 2호분처럼 수평식 천장 구조를 이룬 석실은 미륵사지 서탑의 석제사리감(C유형, 己亥年/639년)과 관련지어 본다면, 7세기 2/4분기에 본격적으로 '부여 왕릉원'에서 유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6]

Ⅲ.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과연 聖王인가?

王陵은 특정사회의 최고 신분층인 王과 그의 家族이 묻힌 무덤이다. 王陵의 조영은 그 시기의 묘제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을 사용함이 일반적이며, 화려하고 장대하게 조성할 뿐만 아니라 부장품도 당대 최고의 물품을 매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당시 문화의 정수가 탐색되는 것이다. 백제는 한강유역에서 건국되어 사비에서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간 지속되었고 한성에서 웅진을 거쳐 사비로 천도하면서 각 시기의 王陵은 도읍지 내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비시대에 재위한 왕들의 무덤은 부여지역에 자리한다고 보아도 문제는 없으며(부여군 2008: 26), 그 대상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로 보아 '부여 왕릉원'으로 파악된다.

백제가 文周王때 웅진으로 遷都한 이후 멸망할 때까지 재위한 왕은 義慈王까지 모두 10명이다. 이중에서 義慈王은 중국에서 生을 마감하였기에[7] 이를 제외하면 모

6)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묘와 16호묘의 사례를 근거로, 銀花冠飾이 출토된 능산리형석실분에서 고임식과 수평식 천장 유형이 병존하였음을 강조한 견해가 있다(이문형 2022: 180). 하지만, 5호묘와 16호묘는 석실의 구조로 보아 시기 차이가 인정되며(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402 〈표 26〉 횡혈식석실묘의 변천, 443 〈표 40〉 나주 복암리 3호분의 분기 및 연대), 각 석실에서 출토된 銀花冠飾 역시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선후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간과한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특히, 16호묘 출토 銀花冠飾은 남해 남치리 백제고분이나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銀花冠飾(2점)과 같은 유형으로서 7C 2/4분기에 통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5호묘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은 부여 능안골 36호 석실묘 출토품과 같이 꽃봉오리에 심엽형 투공이 뚫려 있고 고사리형 세지가 있으므로 16호묘 출토품보다 시간상으로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이한상 2009: 303). 또한, 수평식 천장의 구조가 威德王 이후 王陵으로 조영되지 않는 이유로 法王(599~600년)의 禁殺令으로 대변되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 王陵이 고임식 구조로 통일된 것으로 본 견해(이문형 2022: 180) 역시 문헌이나 고고자료 등을 근거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7)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義慈王 二十年條 定方以所浮見 … 王病死 贈金紫光祿大夫衛尉卿 …

두 9명의 왕들이 웅진과 사비에서 타계하였고, 그들의 陵墓는 이들 지역에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웅진기 王의 陵墓로 파악되는 송산리고분군에는 묘지석으로 主人公이 확인된 武寧王(501~523년)의 陵을 비롯하여 동일한 가계를 이룬 선대의 文周王(475~477년)과 三斤王(477~479년), 그리고 昆支(？~477년)의 陵墓가 존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출신가계를 달리하는 東城王(479~501년)의 陵은 인근에 조금 떨어져서 위치한 교촌리고분군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이주헌 2019: 379~424).

538년 聖王이 사비로 遷都한 이후, '부여 왕릉원'에는 聖王에서 武王에 이르기까지 5명의 王陵이 탐색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고고학적 재조사 등의 정황을 근거로 익산에 소재한 雙陵을 武王(600~641년)의 陵墓로 확정하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이성준 외 2018: 320;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30~34).[8] 이에 따라, 학계에서는 武王을 제외한 聖王과 威德王(554~598년) 그리고 惠王(598~599년)과 法王(599~600년)이 '부여 왕릉원'에 안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들 君主의 사망에 대하여서는 『三國史記』와 『日本書紀』 등의 史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聖王은 554년 7월 관산성전투에서 敗死하였고, 威德王은 그보다 44년 후인 598년 12월에, 그리고 惠王과 法王은 599년과 600년 5월에 각각 逝去하였다.

그동안 '부여 왕릉원'에 분포한 陵墓의 主人公 비정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학계의 정설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사비기 능산리형식실의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분묘의 시간 순에 따른 순서배열을 기준으로 당시에 활동한 王 또는 王妃의 陵墓로 추정하는 연구에서 中下塚(2호분)을 泗沘遷都 후 조성된 王陵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는 것과 東下塚(1호분)을 다소 늦은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학계의 공통된 경향이다(강인구 1977: 84~89; 이남석 2000: 20; 최완규 2011: 281).

---

8)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익산 雙陵을 夫婦墓로 가정하면서, 대왕묘를 武王의 무덤으로 적극 이해하였다. 특히, 2009년 미륵사지 서탑에서 발견된 금제사리봉안기에서 639년 武王의 王后가 佐平 沙宅積德의 딸이라는 사실과 『日本書紀』 皇極天皇 元年(642년) 기사에 근거하여 義慈王의 어머니인 國母主가 武王 사후 1년여 만에 사망했다고 인식하면서, 義慈王의 어머니가 沙宅王后라면 소왕릉은 武王의 부인인 沙宅王后의 陵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雙陵이 夫婦墓라는 근거를 고고학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義慈王 초기의 정변과 이후 沙宅氏의 활약 등 이후 백제 정계의 변화양상이 정합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논리적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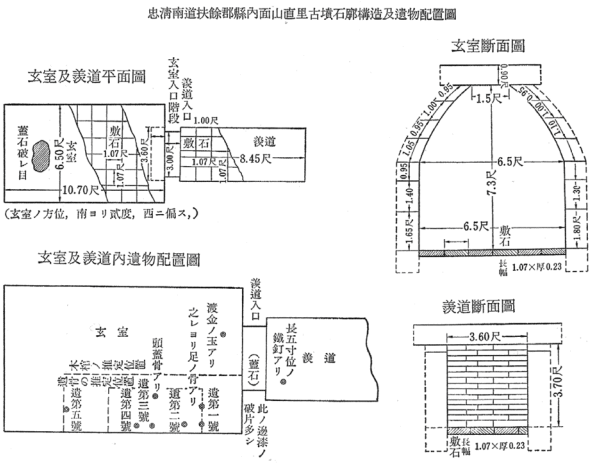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부여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陵墓로 비정하는 학계의 이러한 인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며 공주 송산리 6호분의 고고학적인 맥락과 관산성전투 이후 백제 정계의 동향을 고려하여, 聖王의 陵은 공주 송산리고분군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발표되었다(이주헌 2017: 406~418, 2019: 404~412). 이에 의하면, ①武寧王陵 전축배수구의 훼손상태와 6호분 연도폐쇄부에서 출토된 "梁宣以爲師矣" 명문전의 고고학적인 출토 맥락 ②전문계열 문양전으로 장식된 송산리 6호분 석실의 네 벽면에 백색의 灰를 칠하고 다시 벽화가 그려진 것은 기존 무덤의 재사용을 위한 것 ③6호분의 관대는 武寧王陵에서 王이 안장된 위치와 같은 묘실 내 右側에 배치되어 있으므로 최종 매장형태는 男性 單獨葬으로 파악되는 점 ④6호분의 입지가 武寧王陵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主人公이 武寧王系로서 王族일 개연성이 매우 높음 ⑤관산성전투의 패전으로 聖王과 泗沘遷都를 주도한 세력의 후퇴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한 主和派 耆老들의 입지 강화에 따라 송산리고분군의 서쪽능선에 聖王의 陵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것이다. 이는 '부여 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을 명확한 고고학적 근거 없이 정황적인 판단만으로 554년에 사망한 聖王의 陵墓로 단정한 학계의 논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 제기이며, 그 대안으로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의 분석에 따라 송산리 6호분을 '夫婦獨葬'[9]으로 모신 聖王의 陵으로 비정한 것이었다.

이제는 그동안 학계에서 聖王의 陵墓로 비정한 '부여 왕릉원'의 中下塚(2호분)에 대한 새로운 主人公을 탐색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陵墓로 비정한 논리는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즉, 中下塚(2호분)의 구조가 아치형을 하고 있는 武寧王陵의 천장처럼 터널형을 이루고 있으며, 538년 사비천도 이후 도읍의 근교에 王陵이나 그에 버금가는 상류층의 집단 무덤이 조성되었을 것, 그리고 성왕을 위한 願刹인 능산리사지 목탑에 넣은 石製舍利龕과 棺을 안치한 石室의 모양이 동일한 것은 "王卽佛 思想"의 발현(이도학 1996: 76)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聖王의 陵墓를 中下塚(2호분)에 비정한 것이었다. 결국 일제강점기에 발굴조사한 中下塚(2호분)의 조사기록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채, 무덤의 主人公을 聖王으로 비정해 버린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9) 당초 석실을 축조할 시에는 夫婦合葬을 위해 複數用으로 尸床面을 만들었으나, 최종적으로는 夫婦 중 한명만 안장된 형태를 말하며, 기존에 單獨葬이라고 분류한 것과 같은 것이다. 석실 축조시 死者만을 안장하기 위해 시상을 1人用으로 처음부터 구축한 單葬과는 유행시기 및 매장방식에 있어 개념상 차이가 있다.

567년에 건립된 능산리사지에 대해서도 이미 13년 전인 554년 7월에 사망한 聖王의 願刹로서 昌王銘舍利龕을 봉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였다.[10]

이상과 같은 단순한 논리와 출토문자의 불합리한 적용으로 中下塚(2호분)이 聖王의 무덤일 것이라는 학계의 결론은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1915년 능산리 中下塚(2호분)을 발굴조사한 黑板勝美의 복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명서에 의하면, " … 그 한쪽에 치우쳐 목관을 안치한 흔적이 있고, 뼈 조각 및 칠을 한 목관 못이라고 추정되는 것이 산포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제시한 도면에서도 석실 시상바닥의 좌측편으로 인골과 목관의 잔유물이 흩어져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黑板勝美 1974: 30~35). 비록 도굴된 상태이지만, 中下塚(2호분)의 석실 내에는 시상 左側으로 單獨葬이 실시된 것(윤태영 2019: 164~166)임을 알 수 있는데, 中下塚(2호분)을 그동안 夫婦合葬으로 인식하였던 것과는 분명하게 다른 사실이다.[11] 또한, 黑板勝美의 복명서에는 각종 실측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현실 및 연도내 유물배치도〉에는 석실 내에 위치했던 木棺 추



[그림 6] 中下塚 석실 내부 유물 배치도(1915년)

10) 능산리사지 출토 석제사리감에는 舍利를 공양한 시점과 공양자 만이 기록되어 있고, 사리공양의 목적과 대상자의 死亡 등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안기의 사례로 볼 때, 主人公이 사망하기 전에도 다양한 목적을 위해 舍利를 공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를 554년에 사망한 聖王일 것으로 반드시 단정할 수는 없다.

11) 中下塚(2호분) 석실 내 시상의 서쪽에만 木棺 흔적이 확인되고 동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黑板勝美의 보고문을 근거로, 아마도 동쪽에서 시신의 안장 흔적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었거나 아예 처음부터 木棺이 놓이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었다. 특히, 석실이 후대에 도굴이 되더라도 木棺이 놓이고 부식된 상태에서는 木棺과 관련된 관정 등은 몇 점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中下塚(2호분) 상면 동쪽부분에서는 木棺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잔존유물 또한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夫婦合葬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주목할 만한 견해이다.

정도와 人骨 출토지점이 표기되어 있다(그림 6). 이를 보면 人骨은 시상 左側의 추정 木棺 내부 5개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頭蓋骨이 그 중앙지점에 표기되어 있다.[12] 이와 같은 발굴조사 당시의 기록을 근거로 할 때, 夫婦獨葬으로 이루어진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을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와 같이 聖王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인물로 파악해야 할지,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 서로 비교하는 등 논리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웅진기에서 사비기에 조영된 合葬墓의 경우, 석실 내에서 男女의 안장위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 고분의 경우 묘실 내에서 複數埋葬이 확인된 사례는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특히, 2인 合葬은 주로 횡구식이나 횡혈식석실에서 추가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성격은 家族葬으로 성별이 男女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夫婦合葬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웅진기와 사비기에 있어 석실에 안장된 主人公을 夫婦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공주 武寧王陵을 비롯하여 부여 능안골고분 36호묘와 53호묘를 들 수 있다.

①武寧王陵은 경사진 산비탈을 파고 그 속에 벽돌을 쌓아 만들었는데, 봉분은 지름 20m내외이며 높이는 7.7m이다. 매장주체부는 장방형의 현실에 연도를 갖춘 전축묘로서 현실은 남북 420㎝, 동서 272㎝, 높이 314㎝이다. 현실의 바닥과 관대는 벽돌을 2중으로 깔았는데, 관대가 시설된 곳은 다른 곳보다 지반 자체를 높게 남겨두고 그 위에 벽돌을 깔아 王과 王妃의 合葬棺臺로 만들었다. 武寧王陵은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108종 3,000여 점 정도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실 내부에서는 金松으로 만든 2개의 木棺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는데, 王의 목관은 동쪽에, 王妃의 목관은 서쪽에 놓여 있었다. 목관재를 수습한 다음 내부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王의 유해부에서는 두침과 족좌, 금제관식, 뒤꽂이, 금제이식, 금은제 대금구, 금동제 식리가 출토되었고, 王妃의 유해부에서는 금제관식, 이식, 금은제 천, 금동제 식리가 출토되었다. 대체로 장신구는 木棺 내에, 금속용기와 중국도자기는 木棺 밖에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427~429).

武寧王陵에서 王과 王妃의 배치는 머리방향을 연도(남측)로 향하여 王右妃左가 된다. 武寧王陵은 전실구조와 사용전, 출토유물 등으로부터 중국 南朝의 梁과 밀접

12) 시상에 안치된 人骨 중 足骨은 관대의 남쪽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므로, 중앙지점에 위치한 頭蓋骨은 中下塚(2호분)을 도굴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人骨 散亂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는데(김태식 2017: 44), 이는 전체적인 조사내용으로 보아 합리적인 생각이다.

한 관계가 상정되어있고, 王과 王妃의 배치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추측된다. 『梁書』 天監六年條에는 연회의 석차에 있어서 '西方爲上' 이라 하고, 梁에서는 서쪽(右)을 上席으로 했다. 강인구는 백제고분에 있어서 피장자의 침향이 고분의 방향(횡혈식실묘의 경우는 연도의 개구방향)과 반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강인구 1977: 51). 하지만, 고분의 방향과 피장자의 침향이 일치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 武寧王陵이 처음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고려해 두어야 할 점은 王右妃左라고 하는 중국적인 배치를 취하면서도 王東妃西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東側優位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머리방향을 南側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鐘方正秀 1996: 1350~1351). 그러나 백제에서는 右片袖式을 중국에서 그대로 수용한 사례가 머리방향의 위치가 불분명하지만, 男右女左의 배치방식은 어느 정도 규정된 형태에 따라 행하여졌을 가능성은 충분하다.[13]

②능안골 36호 석실묘는 횡단면이 육각형인 고임식(평사천장식) 판석조 횡혈식석실묘로서 연도는 남벽 동편 우측에 편재한 사비기의 고분이다. 석실 내에는 제자리에 위치한 유물과 함께 人骨 중 잔존한 일부분과 하악골 등이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며 관정과 은제 요패장식, 은제 관모장식 등이 석실 내에서 원형을 유지한 채 드러난 완전한 처녀분이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178~223). 특히, 석실 바닥의 동서에 나란히 안장된 人骨의 흔적이 드러나 夫婦合葬墓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서 양쪽에 드러난 두 人骨의 흔적은 동편(左)의 것이 모든 출토유물의 크기에서나 木棺 등의 크기에서도 서편(右)의 것 보다 다소 큰 것이 주목된다. 출토된 人骨은 左側의 人骨 중 치아와 하악골, 그리고 대퇴골 및 경골 일부와 발뼈 중 종골, 거골 일부가 남아 있어서 나이와 키 등 일부사항을 알아 볼 수 있는데, 연령은 40세가 넘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키는 右側 경골(Tibia)을 기준으로 공식에 대입해 보면 161~168㎝로 추정된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378~382). 한편, 36호 석실 내에서 출토된 銀花冠飾은 동편의 것과 서편의 것이 양식상 차이가 있는데 동편의 銀貨冠飾은 은제 얇은 판을 대칭으로 50° 각도로 세로로 구부린 후 관식의 봉오리에 연

13) 일본 古墳時代의 경우, 男女의 배치관계는 中期부터 일반적으로 男左女右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後期에는 右片袖式 횡혈식석실의 존재로부터 중국식의 男右女左 배치가 이루어지는데, 大坂府 柏原市의 후반기고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百濟系氏族에 의해 5세기 말엽에 右片袖式 횡혈식석실이 도입된 이후 7세기대에 이르기까지 男右女左의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高井田山古墳과 같이 횡혈식석실의 도입에 있어서 石室構築技術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수반되는 思想도 함께 도입되었다고 지적한 견해(鐘方正樹 1996: 1358) 주목된다.

꽃 또는 화염문을 형상화 한 것이고 바로 아래쪽으로는 당초문과 화염문과 같은 모양을 형상화하여 한쪽에 두 개씩 모두 네 개의 장식을 오렸다. 이 장식들은 끝부분이 모두 위를 향하도록 만들었고 가지부분에는 두 줄의 당초문을 대칭방향으로 새긴 것이다. 반면에 서편의 銀貨冠飾은 관식의 가장 윗머리 부분에만 화염문과 같은 장식 1조만 표출한 것이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동 · 서편 유물들의 크기와 모양 등에서 동편(左)은 성인 男性으로 추정되며 서편(右)은 성인 女性의 人骨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185).

③능안골 53호 석실분은 장방형 할석과 판석을 사용하여 조적식으로 쌓은 것으로 석실의 횡단면이 육각형을 띠며 지하식으로 축조된 횡혈식석실묘이다. 연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석실 내부에 인골이 동서로 나란하게 원형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어 夫婦合葬墓 성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출토된 관정 및 관고리의 간격은 木棺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처녀분이다. 특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人骨과 부분적이나마 人骨과 치아 등이 그대로 유존되고 있어 피장자들의 나이와 신장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295~309). 人骨은 2개체 분으로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동편의 경우는 두개골과 상악골, 갈비뼈, 치골 일부와 대퇴부, 정강이뼈 등이 일부 제자리에서 드러났으며, 性別은 골반의 대좌골절흔의 폭이 좁고 깊은 점과 천골의 耳介 앞면 홈(Preoriculaar)이 없는 점, 또한 견갑골의 견봉(Acromion)이 잔존하고 있는 점에서 보아 男性이며 나이는 30세~40세로 파악된다. 서편에서는 두개골과 상하악골, 갈비뼈 일부, 대퇴부 및 정강이뼈 일부가 제자리에서 출토되었는데, 골반의 대좌골흔(greater sciatic notch)이 얇고 넓은 점, 두개골에서 유양돌기(Mastoid Process)의 모양이 작고 부드러운 점, 천골의 耳介 앞면의 홈(Preoriculaar)이 잔존한 점으로 보아 女性임을 알 수 있고, 나이는 25~30세 정도이며 키는 우측 척골의 길이인 25.5㎝를 공식에 대입하여 보면 평균 165㎝ 전후로 분석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 378~382). 한편, 철제 삼각형 모자심이 동편에서만 출토되어 신분상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東西로 안치된 人骨은 合葬된 상태로 남아 있고 관정이나 관고리의 모양, 재질 등에서 신분상의 어떠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木棺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나 기타 모든 출토유물 등에 있어서도 신분상 동측과 서측이 서로 상이하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단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동등한 夫婦合葬墓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분 내에 人骨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안장된 主

人公의 性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석실 내에서 男性은 右側(동쪽), 女性은 左側(서쪽)에 위치한다. 이는 合葬일 경우 백제에서 性別에 따라 피장자의 안장위치가 정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中下塚(2호분)의 경우 시상의 左側(서쪽)에서만 人骨과 木棺의 잔유물이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서도 主人公은 분명히 女性이며 夫婦獨葬으로 안장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聖王의 죽음에 대해서는『三國史記』와『日本書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三國史記』에는 "聖王 三十二年(554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 더불어 싸웠으나 포악한 병사들에게 살해되어 돌아가셨다. 시호를 聖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14]『日本書紀』에는 "…신라는 明王이 친히 온다는 것을 듣고 나라 안의 병사를 모두 내어 길을 끊고 쳤다.… 드디어 苦都는 明王을 붙잡고 두 번 절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왕의 목을 치겠습니다.'고 하였다. … 苦都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면 맹서한 바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노예의 손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고 하였다. … 이때 聖王의 목은 신라 왕궁 북청의 계단 밑에 묻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고, 나머지 몸은 백제로 반환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1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聖王은 머리가 없는 몸만 사비로 보내졌으므로 '부여 왕릉원' 中下塚(2호분)에서 頭蓋骨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고분의 주인공은 聖王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계에서 그동안 명확한 고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中下塚(2호분)의 주인공을 聖王으로 비정해 왔던 것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여 왕릉원' 내에서 차지하는 中下塚(2호분)의 위치와 규모, 그리고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사리감의 존재 등을 고려해 본다면, 中下塚(2호분) 주인공의 성격은 聖王의 직계가족 중 女性에 해당하는 人物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中下塚(2호분)을 聖王의 壽陵으로 파악하고 사비도성 축조 계획단계부터 夫婦合葬으로 설계하였지만 최종적으로는 婦人만 묻히게 되어 夫婦獨葬의 형태로 안장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남편인 聖王은 이곳에 묻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견해는 고려해 볼 만한 것이다(윤태영 2019: 165). 즉, 聖王은 관산성전투에서 敗死하였고, 시신이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聖王의 시신은 사비도성 안으로 들여오지도 못하고 喪

14)『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聖王, 三十二年,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爲亂兵所害薨 諡曰聖
15)『日本書紀』卷十九 欽明紀 十五年 十二月條.

葬禮를 치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며, 陵墓에도 묻히지 못하였을 것이다.[16] 더욱이 喪葬禮를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威德王의 왕위계승 역시 분란을 일으켰을 것이므로 머리가 없는 聖王의 시신은 壽陵으로 그가 만들어 둔 中下塚(2호분)에는 묻히지 못하였을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17]

이러한 추정은 능산리고분군의 서편에 건립된 능산리사지의 건립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창왕명 석제사리함의 명문을 통해서 볼 때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능산리사지 출토 창왕명 석제사리함은 567년에 능산리사지의 木塔에 봉안되었다. 백제에서 寺刹을 세우고 木塔에 舍利를 봉안하는 일련의 과정은 先王의 冥福을 비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기원하고 왕실의 정치적 권위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적으로도 신구 귀족들과 백성들을 통합하여 왕권을 안정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최경환 2023:156). 따라서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은 聖王이 관산성에서 서거한 후 혼란스러웠던 백제 政界를 빠르게 수습하는데 큰 역할을 한 王族 가운데 女性으로 바로 聖王의 婦人은 아니었을까? 현재 남아 있는 문헌기록은 없지만, 그녀는 아들인 餘昌이 주도한 관산성전투를 적극 반대한 주화파 세력과도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聖王의 후사를 昌王이 계승하도록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威德王의 안위를 지척에서 지켜보며 혼란스러웠던 당시 백제의 정계를 바로 세우는데 고군분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中下塚(2호분)에서는 물론이고 능산리사지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데, 즉, 聖王의 부인이자 威德王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王室의 실권자로서 그녀는 당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이러한 상상은 단지 추정만이 아니라 능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창왕명사리감 뿐만 아니라 금동대향로와 같은 고고유물의 존재에서도 그녀의 권위와 역량을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다.[18]

---

16) 이와는 달리 聖王은 喪葬禮를 치르고 능산리고분군에 묻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길식 2008: 87).

17) 聖王의 陵墓를 中下塚(2호분)과 東下塚(1호분) 사이에서 1965년 능산리고분군의 봉분 복원공사시 발견된 석곽묘(능산리 8호)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윤태영 2019: 165). 하지만, 이 석곽묘는 매장주체부가 소형이고 평천장을 한 횡구식석곽(174×76×90㎝)으로 봉분도 조성되지 않았고 훼손된 흔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토유물은 도금한 棺釘 이외에 다른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무덤은 東下塚(1호분)의 배장묘일 가능성이 높으며, 主人公은 평천장을 한 東下塚(1호분) 피장자와 관련된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18) 中下塚(2호분)을 壽陵으로 聖王이 조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에 대해 王妃의 죽음을 가정한 의견(신광섭 2006: 114)도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 검토가 이어지지 않아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

Ⅳ. 益山 雙陵 武王說의 의문점과 피장자 검토

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백제 사비기의 또 다른 都城으로 추정되는 익산에도 왕궁 등 都城의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설과 함께 '부여 왕릉원' 석실을 규모와 석재 가공 정도에서 능가하는 석실인 雙陵이 존재하며, 특히 대왕묘에서는 일본 특산의 金松으로 만든 목관과 중국에서 받아 온 玉으로 만든 허리띠 장식이 출토되어 최근까지도 무덤의 主人公을 武王과 王妃일 것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김낙중 2021: 386; 이문형 2022: 188). 익산 雙陵은 석실의 규모와 구조, 석재의 가공도 및 부장품으로 볼 때 '부여 왕릉원'의 陵墓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오히려 규모면에서는 대형이고 구조와 부장품으로 보아 축조연대를 7세기 전반경으로 추정하며, 武王과 관련된 기록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익산에 위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雙陵을 武王과 王妃의 陵墓으로 추정하는 견해는 이제 거의 학계의 통설로 굳어져 있다(최완규 2001, 2003a, 2003b, 2007, 2011, 2016, 2018, 2023; 이남석 2001, 2014; 이도학 2003; 이병호 2015; 김낙중 2019, 2021; 서현주 2017; 이성준 2018, 2019; 이문형 2018, 2022). 이런 상황에서 雙陵 피장자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고고자료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출토문자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에 대한 曆年代를 제시하고, 이에 정합하는 雙陵의 주인공을 새로운 시각에서 탐색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雙陵 대왕릉에서 수습한 人骨의 방사성탄소연대(^{14}C) 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상의 의문이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조사된 익산 雙陵에 대한 발굴조사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대왕릉에서 수습한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은 치아 4개가 20~40세 여성의 것이고 석실 내부에서 수습한 토기가 신라계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국립전주박물관 2015: 148~151). 이어서 2016년에는 『익산 쌍릉과 출토유물의 검토』라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는데, 雙陵의 피장자에 대하여 그동안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해 왔던 武王과 王妃의 존재를 부정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기하면서(이주헌 2016: 70), 雙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主人公의 실체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 이러한 논란의 해결을 위해 익산시에서는 雙陵에 대한 재발굴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에 실시된 재발굴에서 1917년 谷井濟一가 석실에서 수습한 것으로 추정되는 人骨이 담긴 상자를 대왕릉 석실 내부에서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자에 담긴 人骨에 대하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 조사한 결과, 한 개체분으로 판단되는 人骨이지만 왼쪽 무릎뼈와 왼쪽 목말뼈를 제외한 모든 뼈들은 조각이 나 있었으며 형태학적으로 구분 가능한 뼈 조각들은 총 102개로 분류되었다. 이 뼈 조각들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감정에 있어 性別의 추정은 오른쪽 위팔뼈의 안쪽 위관절융기(내측상과)에 대한 비계측 검사 및 왼쪽 목말뼈와 오른쪽 넓접다리뼈에 대한 계측 검사를 이용하여 性別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해부학적으로 확인된 뼈들에서 부피와 크기가 큰 경향을 나타내고 근육이 일어나고 닿는 뼈표지점들의 돌출 정도도 뚜렷한 소견을 보이는 등 출토 人骨의 性別은 男性으로 판단하였다(카톨릭응용해부연구소 2021: 8). 또한, 확인된 人骨의 나이는 최소 50대 이상 60대의 노년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으며, 넓접다리뼈의 최대길이로 산출한 키는 161.0~170.1㎝로 추정되고, 620(68.2%)659.AD로 사망시점을 산출하였다. 특히, 사망시점은 정강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가속형 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결과이므로, 600년에 즉위하여 641년에 사망한 武王이 10대나 20대에 즉위한 경우, 사망할 때의 나이가 男性 노년층으로 추정되는 雙陵 人骨의 추정나이와 비슷하며, 사망시점인 7세기 초반부터 중반쯤이라는 人骨 분석결과는 대왕릉이 익산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같은 시기에 왕권을 확립한 백제 武王의 陵墓일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이성준 2018: 31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34).

그러나 雙陵 대왕릉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에 대한 해석은 관련 연구자들로 하여금 대왕릉 主人公을 武王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한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한다. 즉, 수습한 人骨에 대한 분석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을 담당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Beta Analytic에 직접 의뢰하여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수행하면서, 연대측정의 정밀도 향상 및 신뢰성 검증을 위해 시료를 이등분한 후 (주)라드피온 고고과학연구소에 주어 각각 연대측정을 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Acceptance test 결과 및 $\delta^{13}C$값, 연대오차 등을 고려했을 때, Beta Analytic에서 산출된 방사성탄소연대도 모두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67). 나아가, 일반적으로 뼈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은 콜라겐을 추출해 진행하는데, 이 경우 산출된 방사성탄소연대에 콜라겐회전율(turnover rate)를 보정해야 하므로 기존연구 사례를 적용하여 56세 사람의 콜라겐회전율을 적용하여 대왕릉에서 수습된 人骨의 사망시점을 결정하였다. 또한, 무덤의 축조시점 및 매장이

사망 이후 수년 내에 이루어졌다면, 매장 주체의 사망시점을 대왕릉의 축조 시점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시료의 분석결과를 1표준편차(1σ/68.2%)로 제시하며, 대왕릉의 축조시점을 620~670.AD로 추정하였다.[19]

하지만, 이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과 국제학회에 의해 제안된 교정곡선(IntCal 13)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에 따른 데이터의 해석과 교정연대(cal BC or cal AD)를 曆年代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錯誤이다. Beta Analytic의 시료분석 결과를 콜라겐 회전율(turnover rate)을 적용하여 보정한 후 제시한 『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 연구보고서』 69쪽의 〈그림 3〉 雙陵 대왕릉의 축조 시점(Death Shift (Bone Beta-498945), Turnover)을 보면, 보고서에서 강조한 620(68.2%)670.AD의 1σ값과 함께 600(95.4%)680.AD의 2σ값도 제시되어 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있어, 1σ(68.2% Probability)값은 3번 측정하면 2번, 2σ(95.4% Probability)값은 20번 측정하면 19번 정도의 유효 수치가 나온다는 의미이므로 국제학회 및 한국고고학계에서는 2σ(95% Probability)값에 의한 결과를 신뢰가능한 연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창희 2008: 162~165). 따라서, 1σ(68.2% Probability)값의 분석치로서 대왕릉의 축조시점을 파악하려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효 값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독자를 설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고고학에서 ^{14}C연대를 曆年代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고학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실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 ^{14}C연대를 단순히 실연대 자체로써의 참고자료가 아니라 고고학적 정황과 조합하면서 활용한다면, 보다 높은 가능성의 曆年代로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도 경청해야 한다(이창희 2008: 178).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고려해 본다면, 대왕릉의 축조시점의 근거로 제시된 방사성탄소연대(^{14}C) 2σ(95.4% Probability) 보정 값이 597~670.AD이므로 이 기간에 사망한 백제의 王으로는 武王(641년 3월 薨)외에도 威德王(598년 12월 薨)과 惠王(599년 ?월 薨), 法王(600년 5월 薨), 義慈王(600년 11월 薨)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도 대왕릉의 主人公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 논리적이다.[20] 또한,

---

19) ^{14}C연대측정에 의한 曆年代 산출은 절대로 하나의 연대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기존에 SNU AMS에서 독자적으로 표현한 '연대 눈금 맞춤 결과(Calibrateed Ages)'는 歷年代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이창희 2008: 166~172).

20) Beta Analytic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1σ(68.2% Probability)값은 620~659.AD이며 2σ(95.4% Probability)값은 597~670.AD으로 검출되었다(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8: 53). 따라서 한국고고학계에서 신뢰 가능한 2σ(95.4% Probability)값의 기간에 사망한 王은 모두 5명이다. 이중 威德王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여 왕릉원'의 능산리형석실의 축조시기에 대해 출토문자를 근거로 한 검토에서 대왕릉과 같은 현실의 횡단면이 육각형(평사천장식)인 석실은 6세기 4/4분기~ 7세기 1/4분기에 활발하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므로, 대왕릉을 7세기 2/4분기에 사망한 武王의 陵墓로 인식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처럼 같은 유구에 대한 고고학 분석법에 따른 결과와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릉을 武王의 陵으로 비정한 학계의 연구방법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왕릉에서 수습한 人骨의 연령은 법의인류학적으로 50세 이상의 男性 노인으로 판단 되었고(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9: 47;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21: 7), 일제강점기에 수습된 치아 4점에 대한 재분석에서도 人骨의 추정 연령은 40~50대로 파악되었다(이성준 외 2018: 317). 이는 42년간 王位에 있었던 武王의 실제 나이와는 차이가 나며, 서로 정합하지 않는다.[21] 수습된 人骨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분석으로 추정된 연령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武王은 적어도 10대 초반에 王位에 오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익산지역에서 貧母의 슬하에서 자란 薯童이 어떻게 어린 나이에 王位에 오를 수 있었는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최완규 2023: 129~136).[22]

다음은 雙陵 대왕묘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에서 玉裝身具에 대한 해석의 의문이다.[23] 이 玉裝身具는 1917년 대왕묘에 대한 발굴조사시 木棺 내에서 출토된 것으로

525년생이므로 사망시 73세의 老人이므로 대왕릉 수습 人骨의 법의인류학적인 추정연령(50대 이상의 노인)과는 정합하지 않으며, 義慈王은 660년 중국으로 압송되어 11월 洛陽에서 病死하였으므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21) 武王의 출생연대를 알려주는 기록이나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 할 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대략 60대 중반~후반쯤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남정호 2015: 143~144; 박현숙 2009: 337).

22) 최근 『三國遺事』 紀異篇 武王條에 기술된 '薯童說話' 가운데 武王의 탄생설화는 중국 漢 高祖 劉邦의 탄생설화와 비견되는 '君權神授'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武王은 익산지역에서 성장한 百濟系 王族이 아니라 馬韓系 세력의 걸출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 이에 의하면, 馬韓의 인식이 뿌리 깊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던 익산지역의 馬韓系 세력은 薯童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고 遷都를 뒷받침하는 후원세력이 되었으며, 雙陵 소왕묘을 武王의 妃 무덤으로 추정하면서 이곳에서 발견된 石柱形 墓標石은 通天柱와 같은 성격으로 백제가 사비로 遷都한 이후, 크게 높아진 夫餘 繼承意識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장자의 출자에 대한 상징적 표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소왕묘 주인공의 출처를 백제 왕실의 公主였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최완규 2023: 140). 이 견해는 설화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武王과 善花公主에 대한 기존의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로서는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3) 대왕묘에서 출토된 적갈색 연질제의 완형토기도 논란이 되는 유물이다. 보고서(국립전주박물관 2015: 151)에 의하면, 이 유물을 신라권역에서 7세기 전반경에 유행한 小型盌으로 파악하였으나 이와 비슷한 완형토기가 군산과 익산지역에서 백제 사비기 토기류와 함께 출토되고 있으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에서도 동일한 기형의 완형토기가 출토된 점을 고려하여 현재 학계에서는 사비기 늦은 단계에 유행한 또 다른 형식의 백제토기

재질은 옅은 담회색을 띠며, 횡경은 2.5㎝이고 타원형에 가까운 심엽형 고리로 상부 중앙에 몸체보다 한단 낮게 폭 0.6㎝의 홈을 넓게 새겼다(국립전주박물관 2015: 50). 이 玉裝身具는 北周 若干雲墓(578년) 출토품(員安志 1993; 劉雲輝 1996), 隋 姬威墓(610년) 출토품(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9), 隋 煬帝(604~618년) 무덤 출토품(東家平 · 薛炳宏 · 秦宗林 2014)과 같은 것이며, 정방형의 과대 네귀퉁이와 한 가운데를 금못으로 고정하고 방형과대 아래로 타원형의 玉裝身具를 연결시킨 것으로, 帶金具의 垂下式이라 할 수 있다. 대왕묘에서 출토된 玉裝身具는 北朝~隋代의 고급관리들이 사용한 玉帶의 띠꾸미개로서 금속에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돌출된 형태를 하고 있어, 隋 煬帝의 蹀躞金玉帶의 띠꾸미개에 달린 수하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물 대금구는 아니지만 부여 외리 출토 문양전 중 鬼形文塼에도 방형과판에 둥근 고리의 수식이 달린 허리띠가 표현되어 있는데,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이 小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낙중 2021: 412).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隋 煬帝의 13環蹀躞金玉帶와 같은 최고등급의 것으로 612년 백제의 武王이 隋에 朝賀하였을 때 煬帝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사[24]와 624년 唐 高祖가 武王을 '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한 것[25]과 관련하여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보거나 637년 唐 太宗이 비단 도포와 채색비단 3천단을 주었다는 기록과 관련하여 唐에서 수여한 金玉帶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낙중 2014a: 166, 2021: 412). 나아가 唐에서 衣服制가 제정된 것은 高祖 武德 4년(621년)이고 674년에 마련된 銙帶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의하면, 문무관 3품 이상은 金玉帶 13과, 4품은 金帶 11과, 5품은 金帶 10과, 6 · 7품은 銀帶 9과, 8 · 9품은 鍮石帶 9과, 서인은 銅鐵帶 7과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국의 銙帶制度가 재질과 과판의 수량으로 서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山本孝文 2005: 308). 그 중 玉은 문무관

로 보고 있다(김낙중 2021: 410). 그러나, 심하게 외반한 구연부와 환저상의 저부를 한 동일한 기형의 완형토기는 아직까지 백제의 사비기 토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기면을 고속회전으로 물손질 한 점, 내면이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부장용 토기라기보다는 일상에서 사용된 생활용기로 판단된다. 또한, 대왕묘의 석실 바닥에서 다소 뜬 상태로 비스듬히 엎어진 이 유물의 출토상태는『高麗史節要』의 忠肅王 16년(1329년)에 기록된 대왕묘 도굴 당시에 燈盞으로 사용한 후 버리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포천 추동리12-1, 아산 장제리 아골 29-2, 김제 라시리 18-21, 창령 사리 1116번지-26 등과 같은 고려시대 유적에서 유사한 형태의 高麗陶器(盌A-외반구연)가 출토되고 있어(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 327~331), 고고학적 맥락으로 보아 대왕릉의 후퇴적 과정에서 후대 유물이 석실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24)『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十二年 春二月條.

25)『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二十五年 春正月條.

3품 이상의 최고위 관료나 王族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왕묘 출토 玉裝身具는 624년 이후 백제의 최고지배층이 사용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병호 2015: 82)으로 玉帶의 위상과 시기로 볼 때, 그것을 소지하거나 착용할 수 있었던 主人公은 武王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하여 왔다(김낙중 2021: 413).

선학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雙陵 출토 玉裝身具는 대왕묘의 축조시기를 분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고자료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백제 사비기 관련 유구와 공반 유물의 曆年代 자료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는 것으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고고자료이다. 하지만, 기존연구에서는 문헌기록을 인용하면서도, 史料와는 정합하지 않게 해석하여 玉裝身具의 主人公을 武王에 맞추어 가는 듯하다. 즉, 唐이 성립한 후 高祖(618~626)대에 제정된 衣服制의 내용을 살펴보면, 1 · 2품은 金, 3~6품은 犀, 7~9품은 銀, 서인은 鐵로 銙帶를 제작하였으므로[26] 玉裝身具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玉裝身具는 高宗 顯慶 1년(656년)이 되어서야 제정된 衣服制에서 문무관 3품 이상은 金玉帶 13銙를 착용하게 되므로,[27] 이때 비로소 唐에서는 金玉製 銙帶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정범 2017: 119). 따라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를 唐 高祖가 武王을 '帶方郡王百濟王'으로 책봉한 624년이나 唐 太宗이 포상했다는 637년 기사와 관련하여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하는 기존의 견해는 문헌기록과는 전혀 정합하지 않는다. 또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처럼 원형의 수하식이 달린 허리띠는 唐式銙帶와는 이질적인 면이 있어 따로 環帶 등으로도 불리며, 北朝~隋代의 성립기에 唐式銙帶와 공존했던 것이나 初唐代의 이른 시기까지 성행하다가 본격적으로 唐式銙帶가 확산되면서 소멸한 것으로 파악하는 연구(山本孝文 2007: 43~45; 최정범 2017: 104~105)는 주목된다. 따라서, 대왕릉 출토 玉裝身具는 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기보다는 唐 수립(618년) 이전에 이미 백제에 전해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당시 백제사회에서 시행되었던 喪葬禮이다. 백제의 喪葬禮는 중국의 喪葬禮를 모범으로 하여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관리가 죽은 후 官服을 입은 채로 장사지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관직을 맡은 자뿐

26) 『唐書』 卷二十四, 志 第十四 車服條 … 至唐高祖 以赭黃袍 巾帶爲常服, 腰帶者… 一品二品銙以金 六品以上犀 九品以上銀 庶人以鐵, …

27) 『唐書』 卷二十四, 志 第十四 車服條, 顯慶元年… 其後以紫爲三品之服 金玉帶十三, 緋爲四品之服 金帶銙十一, 淺緋爲五品之服 金帶銙十, 深綠爲六品之服, 淺綠爲七品之服 皆銀帶銙九…

만 아니라 준관리 신분 칭호를 부여받은 여성이나 연령에 국한되지 않은 작위를 책봉 받은 자들도 포함되었다(韋正 2022: 26). 특히, 南朝시기의 제왕이나 고관대작의 대렴 시에는 官服 착용이 성행하였는데, 제왕은 袞冕服으로, 命官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公服으로서 황제가 내린 命服을 입혔다. 公服 이외에도 棺槨도 황제의 賻贈品으로 사여받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백제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성행한 '朝服葬'이 적용되었는데,[28] 대략 4세기 말~5세기 전반 무렵을 시작으로 금동제 冠帽와 飾履를 중심으로 하는 착장 威勢品이 나타난다. 이들은 물론 喪葬儀節 전개상 소렴 혹은 대렴 단계에 이루어진 것인데, 武寧王陵의 경우 '朝服葬'에 해당됨은 물론이고, 이는 사비시기까지 이어졌다(박순발 2023: 200). 따라서, 武王은 600년 5월에 즉위하였으므로, 612년 隋에 朝賀하였을 때 煬帝가 상을 후하게 주었다는 기사[29]와 관련지어 玉裝身具가 전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만, 唐이 성립된 618년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唐에 朝賀하면서 새로운 관직과 그에 해당하는 官服을 武王은 수여받았다. 특히, 武王이 逝去한 641년에는 백제의 使臣이 唐에 입조하여 武王의 죽음을 알리자, 唐 太宗은 玄武門에서 哀悼式을 거행하고 詔書를 내렸다. 이때 죽은 武王에게 光祿大夫(從2品)를 추증하고 賻儀를 후하게 내렸다는 기록[30]으로 보아 武王의 葬儀時에는 唐 太宗이 하사한 公服을 착용하고 陵墓에 안장되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31] 武王은 唐으로부터 2品에 해당하는 칭호를 받았으므로 唐 高祖(618~626)대에 제정된 衣服制에 따라, 1 · 2品이 착용하는 金帶를 착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익산 雙陵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와 관련된 金玉帶는 唐 顯慶 1년(656년)에 제정된 衣服制에서 처음으로 文武百官에게 적용되었으므로, 武王이 在位하였을 때나 또는 葬儀時에도 金玉製銙帶를 唐으로부터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28) 백제에서는 발굴된 분묘의 수량과 확인된 官服 관련 유물의 양을 대비해 볼 때,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에 반드시 官服을 입혔다고 볼 수는 없으며, 專用埋葬服의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문헌기록도 없고 실물이 확인된 바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으며 복식과 관련된 장식품이 전혀 출토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장자에게 평상시에 있었던 옷이나 帶金具를 수반하지 않는 專用埋葬服을 입힌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山本孝文 2007: 51).

29)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十二年 春二月條

30)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武王 四十二年 春三月條 … 使者入唐 素服奉表曰 君外臣夫餘璋卒 帝擧哀玄武門詔曰 … 贈光祿大夫 賻賜甚厚

31) 중국의 朝服葬 기사를 근거로 무덤에서 출토되는 帶金具를 葬服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정대영 2006).

그렇다면, 대왕릉 木棺 내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헌사료와 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볼 때, 武王이 아님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으며 武王 이전에 逝去한 王이거나 王族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2018년에 진행된 雙陵 재발굴에서 수습한 人骨의 추정 연령(50대 이상 노인)과 치아에 대한 분석(40대 이상) 및 정강뼈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가속질량분석기(AMS)로 검출된 신뢰가능한 과학적 결과(600~680년/95.4%)를 근거(이성준 2019: 31~33)로 이를 정합적으로 적용하여 그 主人公을 비정하는 것이 더욱 논리적일 것이다.

한편, 대왕릉의 主人公이 武王이 아니라면, 소왕릉 피장자 王妃說 역시 성립할 수가 없다.[32] 따라서 소왕릉 피장자에 대한 문제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려면, 우선 대왕릉과 소왕릉 사이의 선후관계를 고고자료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의 연구가 있다. 雙陵 소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木棺에 사용된 도금투금구와 금동좌금구의 단면 형태 및 도안의 특성을 비교해 소왕릉이 대왕릉보다 먼저 축조 되었다는 연구가 그것이다(이병호 2017: 341~342).[33] 그런데, 이에 대하여 유물의 출토 맥락과 조사 기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대왕릉과 소왕릉 출토품을 나누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국립전주박물관 2015: 147), 소왕릉 투금구의 결합부와 대왕릉 좌금구의 결합홈을 대조하여 너비가 좁은 소왕릉 출토품 2점을 대왕릉과 관련지어 본 것은 유의미한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능산리 中上塚과 7호분은 聖王이나 威德王의 陵으로 거론되지 않는 육각형 단면의 單葬이며, 석실의 규모도 큰 차이가 없어 惠王과 法王 또는 그와 관련된 왕실의 陵墓로 추정하면서 惠王부터 武王까지의 짧은 기간에 '능산리 中上塚 · 7호분→소왕릉→대왕릉'의 선후관계를 설정할 수 있을 만큼 투금구와 좌금구, 투조관식의 장식요소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32) 기존에 소왕릉 피장자가 武王의 妃일 것이라는 판단은 고고학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대왕릉 주인공이 武王이라는 전제 아래, 『高麗史』의 俗說과 설화적인 성격이 강한 『三國遺事』 등의 기록물을 근거로 성립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왕릉 主人公이 武王이 아니라면 소왕릉 王妃說은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고고자료를 근거로 하여 소왕릉 피장자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33) 『三國遺事』 미륵사 창건연기설화를 보면, 武王은 薯童이었고 武王妃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善花公主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2009년에 발굴된 미륵사 서석탑 사리봉영기 내용에는 善花公主가 아닌 佐平 沙宅積德의 딸이 王妃였고 미륵사 창건도 이 沙宅積德의 딸이 원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마디로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연기설화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지금까지의 주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로 고고학자의 고백(조유전 2016: 10)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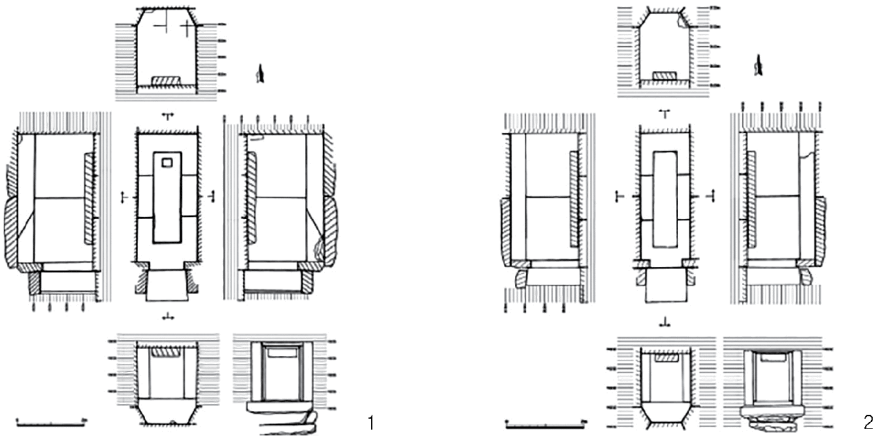
않다고 이해하면서도, 다만, 당시에 구축된 모든 자료를 검증하고 바로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이성준 2019: 29~30).

따라서, 소왕릉과 대왕릉의 선후관계는 출토맥락이 애매한 유물에 대한 명쾌한 분석뿐만 아니라 출토문자를 근거로 한 석실유형의 설정과 석실 내 세부적인 속성의 유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문제의 해법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34] 이는 소왕릉에 대한 재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석실의 형태와 규모 및 입지 환경 등의 속성이 대왕릉과 서로 대동소이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그림 7-1, 2).[35] 즉, 소왕릉은 석실의 규모는 길이 343㎝, 너비 128㎝, 높이 175㎝이고, 현실 천장의 횡단면은 육각형으로 '부여 왕릉원'에 분포한 여러 고분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작지 않은 규모이므로 피장자는 王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왕릉은 석실의 구조에 있어서 ⓐ현실은 단벽 1매와 장벽 2매의 화강암제 판석으로 축조하였으며 ⓑ현실 중앙에 대형 관대(길이 245㎝, 너비 63㎝, 높이 20㎝)가 1개 설치되어 있고 ⓒ문틀식 현문구조에 짧은 연도(길이 50㎝ , 너비 110㎝ 내외)가 설치되었으며 ⓓ1매의 판석으로 현실과 연도를 폐쇄한 것 등으로 공통점이 많다. 따라서 대왕릉과 소왕릉은 동일한 조묘집단의 기술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규모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석실의 구조와 축조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신광섭 2006: 106).[36] 이는 고분을 축조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매우 근접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결국 고분의 主人公이 逝去한 시점 또한 매우 근접했을

34) 소왕릉에서 출토된 금동도금투금구와 동일한 것이 西上塚(4호분)과 中上塚(5호분)에서도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동일한 형식의 도금투금구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3기 석실의 피장자는 사망시점이 서로 근접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35) 雙陵은 익산시 필봉면 석왕동 왕묘리라는 곳에 2기의 陵이 남북으로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2기 모두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서로 약 180m 정도 떨어져서 각각 조성되어 있는데, 북동쪽에는 대왕릉이, 남서쪽에는 소왕릉이 위치한다. 雙陵이 입지한 구릉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왕릉과 대왕릉은 각각의 낮은 구릉의 정상에 입지해 있는데, 이는 각 고분 主人公의 성격이 독립된 인물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일한 구릉상에서 서로 연접하여 조영되어 夫婦墓로 파악하고 있는 다른 고분들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雙陵'이란 명칭이나 『高麗史』의 俗說 등을 근거로, 소왕묘와 대왕묘를 夫婦墓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은 고고학적인 근거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6) 中上塚(5호분)의 구조도 雙陵과 공통적인 속성이 다수 보이므로 이 3기의 능묘는 동일한 조묘집단에 의해 서 축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실 단면이 육각형을 이룬 中上塚과 雙陵은 고임석의 기울기(고임각)에 있어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조묘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능산리형석실 고임각의 변화와 주요 능묘의 피장자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지면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그림 7] 雙陵 평 · 단면도(1. 대왕릉, 2. 소왕릉)

가능성이 매우 높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威德王(598년 12월 薨)[37]과 惠王(599년 ? 월 薨),[38] 法王(600년 5월 薨)[39]은 2년이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에 3명의 君主가 차례로 逝去하였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백제 웅진기 및 사비기에 제작된 출토문자 자료를 해당시기에 축조된 능산리형석실의 특징 및 변화과정과 서로 비교하면서 이를 정합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방법에 비하여 논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부여 왕릉원'의 主人公을 새로이 비정하는 작업은 聖王~武王에 이르는 사비기 陵墓에 대하여 부정합하였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이해하는 최선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항상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역사가의 話頭일 것이라 생각한다.[40]

---

37)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威德王 四十四年 冬十二月 王薨 群臣議諡曰威德

38)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惠王 二年 王薨 諡曰惠

39)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法王 二年 夏五月 薨 上諡曰法

40) 문헌사료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나오는 '王興寺'를 익산의 '彌勒寺'로 파악하면서 왕궁리 궁성의 건립 주체를 王子 惠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익산 및 그 주변지역은 王子 惠에게 分封된 지역으로 惠王에서 法王, 武王으로 이어지는 백제 말기 왕실에 있어 물질적 · 정신적 기반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최연식 2012: 1~35). 이에 의하면, 法王과 그의 집안이 익산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가 王位에 올라 父王인 惠王의 명복을 빌며 왕실의 願刹인 王興寺를 익산지역에 건립하려한 것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지역에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찰을 건립하여 불교를 통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한 것으로, 백제사회에서 죽은 국왕과 왕실구성원을 위하여 사찰을 만들어 명복을 빌고 신성시하는 작업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는 익산 '彌勒寺'의 창건과 익산지역의 개발을 武王으로만 일관되게 연결지어 인식하여 왔던 학계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신선한 탁견으로, 출토문자를 고고학 자료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방법으로 雙陵의 피장자를 새로운 인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한 본고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Ⅴ. 맺음말

백제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당대 백제인들이 남긴 기록인 출토문자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특히, 백제사에서 정치 · 불교의 단면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능산리사지 석제사리감 및 왕흥사지 석제사리감과 청동제사리합, 그리고 미륵사지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당대의 기록물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 무렵의 백제왕실의 사리신앙과 왕실사찰에 대한 창건 배경을 비롯하여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상세한 검토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사실 미륵사지 서석탑 출토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는 문헌연구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료의 일부를 보완해 주는 최고급 문헌정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화적인 양상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자료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사리봉영기에 기록된 字句의 해석과 새로운 사실의 확인 등에 열중하거나, 기존 연구와의 정합 여부에 몰두하는 연구경향이 지배적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자료의 출토 맥락이나 형태적인 변화양상과 당시 문화생활의 결과물인 고고자료와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려는 연구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지금이라도 반성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한편, '부여 왕릉원'은 백제가 遷都한 이후 왕실에서 조성한 그들 家系의 陵園으로서, 聖王~威德王에 이르는 사비기의 王과 王族이 永眠해 있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일부 陵墓의 피장자에 대하여 일련의 연구가 일단락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백제 사비기 지배층의 사회적인 인식과 불교의 수용능력을 반영하는 석제사리감의 세부적인 형태나 사리봉영기와 같은 출토문자를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에 적용하여 曆年代를 추정해 보면,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새로운 主人公을 그려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中下塚(2호분)의 피장자는 聖王이 될 수 없으며, 雙陵에서 수습된 人骨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근거로 主人公을 武王으로 파악하거나, 대왕릉에서 출토된 玉裝身具에 대한 해석에서 문헌기록과 정합하지 않는 상황 등을 지적하면서 雙陵 武王說의 재검토가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부여 왕릉원'에 있는 中下塚(2호분)의 主人公은 聖王의 婦人이며, 武王의 陵墓로 정설화 되어 있는 益山 雙陵은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를 접목시켜 정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主人公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聖王

~武王에 이르는 백제 사비기의 陵墓에 대한 비정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출토문자 자료를 근거로 능산리형석실의 변화양상을 추적해 볼 때, '부여 왕릉원' 陵墓의 主人公에 대한 새로운 비정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中下塚(2호분)이나 益山 雙陵의 主人公에 대하여 문헌기록이나 고고자료와 정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인물의 陵墓로 비정하거나, 당시의 역사를 描寫하여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江湖諸賢의 슬기로운 판단에 힘입어,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들이 올바르게 정리되기를 기대해 본다.

투고일 2024. 04. 10 | **심사완료일** 2024. 05. 22 | **게재확정일** 2024. 05. 31

참고문헌

- 國文 -

강원표, 2016,「능산리고분군 개요」,『유리건판으로 보는 백제의 고분』, 국립중앙박물관.

강인구, 1977,『백제고분연구』, 일지사.

고유섭, 1975,『한국 탑파의 연구』, 동화출판사.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나주 복암리 3호분』.

_____, 2009,『한국고고학전문사전-고분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8,『능산리-부여 능산리공설운동장 신축 예정부지-』.

_____, 2009,『왕흥사지-목탑지 금당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18,「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목제시편 절대연대측정」(연구용역보고서).

_____, 2019,『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보고서』.

국립부여박물관, 2000,『능사-부여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진전보고-』.

국립전주박물관, 2015,『益山 雙陵』(일제강점기 자료조사보고 16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22,『고려도기 Ⅳ』.

김규운 · 양숙자, 2016,「부여 능산리고분군 성격에 대한 재고」,『문화재』 49권2호.

김길식, 2008,「백제 시조 구태묘와 능산리사지 -구태묘에서 묘사로-」,『한국고고학보』69.

김낙중, 2014a,「묘제와 목관을 통해 본 익산 쌍릉의 의미」,『문화재』47-4,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4b,「고고학적 성과 및 의의」,『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_____, 2019,「서평『부여 능산리 1호분(東下塚)』(국립부여박물관)」,『백제학보』29호, 백제학회.

_____, 2021,『고고학으로 백제문화 이해하기』, 진인진.

김연수, 2000,「백제의 사리장엄에 대하여」,『동원학술논문집』2, 국립중앙박물관.

_____, 2003,「백제의 사리장엄에 대하여」,『백제금동대향로』, 국립부여박물관.

김태식, 2017,「부여 능산리고분 · 사지」,『부여 능산리고분군 조사기록화사업』, 부여군.

김현용 · 오정현, 2014,「사리장엄 발견 및 수습」,『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라북도.

남정호, 2015,「백제 무왕의 왕비와 의자왕의 생모에 대한 고찰」,『역사교육논집』55, 역사교육학회.

박순발, 2023,「무령왕릉과 백제의 상장의례」,『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국립공주박물관.

박현숙, 2009,「백제 무왕의 익산경영과 미륵사」,『한국사학보』36, 고려사학회.

부여군, 2008,『부여 능산리고분군 동하총 보존환경조사 보고서』.

山本孝文, 2002,「백제 사비기 석실분의 계층성과 정치제도」,『한국고고학보』 47.

_____, 2005,「한국 고대 율령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7,「백제의 환대에 대하여」,『호서고고학』16.

서현주, 2017,「백제 사비기 왕릉 발굴의 새로운 성과와 역사적 해석」,『한국고대사연구』88, 한국고대사학회.

신광섭, 2006,「백제 사비시대 능사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2021,『익산 쌍릉 -조사보고서-』.

윤태영, 2019,「부여 능산리고분군 경관에 대한 시론」,『백제 능산리 1호 東下塚』(2019 특별전).

韋　正, 2022,「魏晉南北朝墓葬制度略述」,『고대 동아시아의 상장의례』, 국립공주박물관.

이귀영 · 박대남, 2010,「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의 의의」,『백제 불교문화의 보고 미륵사』,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남석, 2000,「능산리고분군과 백제왕릉」,『백제문화』 2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01,「백제고분과 익산 쌍릉」,『마한 · 백제문화』제15집,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4,「익산 쌍릉과 백제유적」,『사비시대의 백제고고학』, 서경문화사.

이도학, 1995,「부여 능산리 출토 사리감 명문의 의미」,『서울신문』, 11월 6일자.
_____, 2003,「백제 무왕대 익산천도설의 재검토」,『경주사학』, 경주사학회.
이동식 · 이연경, 2014,「사리장엄 매장환경 분석」,『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문형, 2018,「익산 쌍릉(대왕릉)의 새로운 인식」,『백제왕도 익산』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_____, 2022,「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쌍릉 피장자」,『한국고대사연구』106.
이병호, 2015,「백제 사비기 익산 개발 시기와 그 배경」,『백제연구』61,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_____, 2017,「일제강점기 익산지역의 고적조사와 쌍릉 출토품」,『백제문화』제56집,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이성준, 2019,「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이성준 외, 2018,「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에 대한 연구」,『한국고고학보』제109집, 한국고고학회.
이주헌, 2016,「익산 쌍릉의 유구와 유물에 대하여」,『익산 쌍릉과 출토유물의 검토』, 국립전주박물관.
_____, 2017,「송산리6호분 문양전의 성격과 무령왕릉의 역연대」,『한국고대사탐구』27.
_____, 2019,「공주 송산리고분군의 조영가계와 피장자」,『한국고대사탐구』32.
이창희, 2008,「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의 원리와 활용」,『한국고고학보』68집.
이한상, 2009,「미륵사지석탑출토 은제관식에 대한 검토」,『신라사학보』16.
장경호, 1988,「백제 사찰건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미애, 2020,「백제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안기의 정치적 성격」,『목간과 문자』25호.
정대영, 2006,「백제 출토 중국계 유물의 정치사회적 함의」,『백제 생산기술의 유통과 정치사회적 함의』.
조유전, 2016,「백제 왕도 익산과 쌍릉」『익산쌍릉의 정체성 규명과 향후과제』,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조은경, 2011,「미륵사지석탑의 구조체계와 축조해석」,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경미, 2002,「한국 고대 사리장엄에 미친 중국의 영향」,『미술사학연구』235, 한국미술사학회.
_____, 2003,『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_____, 2014,「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의 성격과 의의」,『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8,「백제 왕흥사지 출토 사리장엄구와 6세기 동아시아 불교문화」『백제연구』67.
천득염, 1990,「백제계 석탑의 조형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경환, 2023,「聖王의 대통사 창건 목적과 의미」,『1500년 전 백제 무령왕의 장례』, 국립공주박물관.
최연식, 2012,「미륵사 창건의 역사적 배경」,『한국사연구』159.
최완규, 2001,「익산지역의 백제고분과 무왕릉」,『마한 · 백제문화』제15집,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03a,「익산 쌍릉의 재검토」,『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_____, 2003b,「익산지역 무덤 축조세력과 쌍릉(무왕릉)」,『익산 미륵사와 백제』일지사.
_____, 2007,「분묘유적에서 본 익산세력의 전통성」,『마한 · 백제문화』제17집, 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_____, 2011,「익산지역 무덤 축조세력과 쌍릉(무왕릉)」,『익산 미륵사와 백제』일지사.
_____, 2016,「전북지역 마한백제묘제의 양상과 그 의미」,『백제학보』제18호, 백제학회.
_____, 2018,「최근 고고학 성과로 본 백제왕도 익산」,『백제왕도 익산』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_____, 2023,「백제 무왕의 천도와 익산」,『동아시아 속의 고도 익산』마한 · 백제문화연구소 · 익산시.
최정범, 2017,「중국 당식 대장식구의 등장과 전개」,『중앙고고연구』제22호, 중앙문화재연구원.
카톨릭응용해부연구소, 2021,「대왕릉 출토 인골 법의인류학 분석 결과보고서」,『익산 쌍릉-분석보고서-』.
하승철, 2017,「남해 남치리 백제고분의 출현과 그 배경」,『백제학보』제19호, 백제학회.
한정호, 2013,「백제 불탑 사리장엄의 조사현황과 특징」,『백제사찰연구』.

- 日文 -
鐘方正樹, 1996,「左右と男女」,『網干善教先生古稀記念 考古學論集』.
有光教一, 1979,「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 · 益山雙陵」『橿原考古學研究所論集』 4.
黑板勝美, 1974,「朝鮮史蹟遺物調查復命書」『黑板勝美先生遺文』, 吉川弘文館.

- 中文 -
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59,「西安郭家灘隋姬威墓清理簡報」,『文物』59-8, 文物出版社.
束家平 · 薛炳宏 · 秦宗林, 2014,「江蘇揚州曹墅隋煬帝墓考古成果專家論證會紀要」,『東南文化』第237期.
員安志, 1993,『中國北周珍貴文物』, 陝西人民美術出版社.
劉雲輝, 1996,「北周若干雲與其玉帶考」,『歷史文物』9-7(通卷72), 國立歷史博物館.

http://doi.org/10.20292/jcich.2024.44.107

The historic chronology and character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as seen by the excavated a records

Lee, Ju-Heun(Chairman, The Pusan Archaeological Society)

This study compared the various forms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based on the excavated a records identified of Sabi period in Baekje, Among the main characters of King's tombs in Sabi preriod, the existing research trends and problems of N0.2 in Neungsan-ri(中下塚) and a Royal Tombs in Iksan(益山雙陵) are examining, and approaching from a new vision of these character.

Buyeo Royal Tombs Garden(扶餘 王陵園) is a tomb of their family members created by the royal family after move to Sabi, and it is generally known as a place where the kings and royalty are buried from the King Seong(聖王) to the King Mu(武王). If you estimate the historic chronology by applying the detailed form of the stone sarira container(石製舍利龕), which reflects the social perception of the Sabi preriod ruling class and the capacity of Buddhism, or the excavated a written characters such as the changing patterns of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you can picture a new character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erception.

Therefore, the character of No.2 in Buyeo Royal Tombs Garden was found to be a female tomb, not the King Seong. In addition, a Royal Tombs in Iksan, which is established as King Mu's tomb, questioned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by combining the excavated a records and archaeological data and insisted on the urgent need to find a new character.

In other words,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of human bones recovered

from a Royal Tombs in Iksan the character is identified as King Mu or the existing perception of jade-accessories belt excavated from the royal tomb does not match the excavated a records and historical records.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not being able to explain this clearly, so it is urgent to review the theory of King Mu of the Royal Tombs in Iksan. In the future, I think that the request for the royal tombs of Sabi period from Baekje's King Seong to King Mu, should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can minimize the problems of existing research, breaking away from stereotypes.

Key words : the excavated a records, the stone sarira container, the historic chronology, Stone chamber Tombs in Neungsan-ri, Buyeo Royal Tombs Garden, Royal Tombs in Iksan.